

고대, 중세시기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의 반동성

손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리론분야에서 반동적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500페이지)

고대, 중세시기 존재한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의 반동성을 정확히 밝혀내는것은 노예 소유자국가형법과 봉건국가형법의 비과학성과 허위성, 기만성을 옳바로 해명하고 이 시기 형법의 반인민적, 반동적성격을 명백히 발가놓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고대, 중세시기 착취계급들은 저들의 정치적지배와 착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합리화, 정당화할수 있는 방향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견해들을 내놓았다.

력사적으로 볼 때 범죄예방에 관한 견해는 착취계급의 대변가들인 일부 사상가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죄를 범한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그가 속한 지역 또는 그의 친척들에게 《련좌》를 들썩우는 방법으로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들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제창된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는 범죄예방의 진정한 목적을 외곡하는 방법으로 그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고 대중을 기만하자는데 그 반동적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먼저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는 착취사회의 법과 도덕률을 통하여 표현된 착취계급의 의사를 근로인민대중에게 강요하며 그 준수를 강박하려는 목적을 합리화하려는 방향에서 제창되었다.

그것은 우선 사람들에게 《법교육》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이 견해는 중국에서 전국시기에 《법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법가학파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법가들이 제창하는 《법교육》은 법을 제정한 후에 반드시 글의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법률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취지를 다 알수 있게 하여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것이다.

이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이 저들의 계급적의사와 요구를 국가적의사로 절대화하여 인민들을 착취제도에 순순히 복종시키자는데 있다.

법가들이 말하는 성문화의 형식을 통한 법제정과 공포는 성문법들에 범죄와 형벌수단들을 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인민대중을 위협공갈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등장한 신흥지주계급이 저들의 의사와 요구를 법화하고 그에 기초한 통치질서를 수립하려는데로부터 제창된 반동적인 견해였다.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그 실현에 복무한다. 착취사회의 법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계급의 무제한한 압박과 착취를 허용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사소한 반항도 《범죄》시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법이다. 이러한 법으로 근로인민대중을 교육하여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근로인민대중을 착취계급국가의 법에 복종시키고 그의 자주성을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은 더욱더 커지리라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또한 《종교률리도덕》의 외피를 쓴 도덕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견해에서 표현되었다.

이 견해는 중국춘추전국시기에 유가학파에 의하여 제창되었다.

이 학파는 도덕의 감화작용에 의하여 범죄를 예방할수 있다는 《도덕에 의한 범죄예방론》을 주장하였다.

유가학파는 형벌의 강제작용에 앞서 도덕의 감화작용을 리용하여 범죄를 예방할데 대한 형사법률적견해를 내놓았다.

그것은 첫째로, 형벌을 삼가하고 세금을 줄이는것 둘째로, 교화하지 않고 죽이는 형벌을 없애는것 셋째로, 도덕교화를 위주로 하고 형벌을 보조로 하는것이였다.

유가학파는 잔인한 폭압에만 의존해서는 귀족노예주통치를 유지할수 없다는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이러한 교활한 통치수법을 고안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는척 하면서 종교률리도덕을 주입하면 그들을 반항하지 않는 《순한 백성》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유가학파는 사람들을 행정명령이나 형벌수단만으로 통치하면 그들이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죄의 수치를 느낄수 없다고 하면서 덕으로 교화하고 《례교》로 수양하면 백성들이 범죄의 수치를 느끼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유가는 《형》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덕》에 의해서만 백성들을 참다운 지경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이러한 견해는 도덕의 계급적성격을 떠난 비과학적인 견해이다. 계급사회에서 도덕은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띤다.

착취계급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도덕이 지배적인 도덕으로 되며 그것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데 복무한다. 특히 노예 및 봉건사회에서 도덕은 유교교리에 기초한 른리도덕규범이였다.

유교도덕은 인민대중에게 착취제도와 왕권을 신성화하고 맹종맹동과 순종의식,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는 극히 반동적인 도덕이였다.

이러한 견해는 통치배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덕》의 외피를 씌으로써 인민대중을 착취계급의 른리도덕규범에 얹매여놓고 착취계급적률리도덕을 강요하여 그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통치배들의 계급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반동적사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법과 교양을 서로 결합하여 범죄를 방지할데 대한 견해에서 표현되었다.

중국봉건국가의 학자 왕부지(1619-1692)는 범죄예방에서 법과 교양을 서로 결합할데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왕부지는 나라를 다스리는데서 법의 역할을 옹당하게 평가했으나 만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법과 형벌이 있다고 하여도 사회악을 근절할수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법과 교양을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유가들이 전통적으로 써오던 《덕주형보》에 관한 견해의 새로운 변형이였다. 그는 《법은 한계가 있

고 사람들의 범죄는 끝이 없다.》, 《한정된 법으로 끝없는 범죄를 다 제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범죄를 막자면 법과 교양을 서로 결합할데 대하여 제창하였다.

이 견해도 역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립장에서 제기한것이 아니라 착취사회의 법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교양이라는 외피를 쓰고 저들의 법질서에 강압적으로 복종시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억누르려는데 있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는 주권을 쥔 반동적인 지배계급이 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제도를 고안해내고 《합리화》할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제창되었다.

이 견해는 일반사람들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혹한 형벌을 집행하여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방지하므로 범죄방지의 효과를 얻는것이라고 하는 견해에서 표현되었다. 다시말하여 형벌집행을 엄하게 하여 형벌의 위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범죄예방을 실현할것을 주장하는데서 나타났다.

고대, 중세시기에도 법을 명확히 제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통치할데 대하여 주장되었다. 그러나 법발전정도가 미약하고 성문법보다 관습법에 많이 의거하고있었던 당시의 조건에서는 실현될수 없었다. 이로부터 필수적으로 형벌집행을 통한 《위협설》이 주장되게 되었다.

특히 봉건국가에서의 형벌집행을 통한 《위협설》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되 그 실현방도를 형집행의 위협에서 찾았다. 다시말하면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집행방법을 공개함으로써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형벌집행을 통한 《위협설》은 고대, 중세시기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주장된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형벌집행을 통한 《위협설》의 견지에서 주장된 범죄예방에 관한 개별적인 견해와 표현들은 많이 찾아볼수 있다.

고대그리스의 쏘피스트들은 형벌을 《보복》, 《응보》로 보는 피타고라스학파의 견해에 대립하면서 《수행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할것이 아니라 형벌은 《범죄를 수행한자뿐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는것을 본 주민들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하여》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공포》를 주는것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 형벌의 기본목적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부터 쏘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줄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어떤 형벌수단이나 집행방법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대인디아의 《마누법전》 제7장 제24조에서는 만약 《형벌이 없다면 모든 신분제도는 마사졌을것이고 전체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을것》이라고 하였고 제25조에서는 범죄자들을 죽여없애는 류혈적인 형벌을 리용하여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들고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 위협을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를 규제하였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이라는 미명아래 《공포》를 줄수 있는 온갖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수단들을 고안해내고 집행하려는 착취계급의 요구의 반영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되었던 형벌제도의 잔인성을 합리화해보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제도였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수 있는 형벌종류와 그 집행방법들이 실제적으로 잔인하고 가혹하게 이루어져있었다.

그것은 우선 이 시기에 사형과 체형을 위주로 한 형벌제도가 수립되었으며 보다 잔

인하고 가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집행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였다.

사형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은 생매장, 교수형, 단두형, 화형, 수장형, 락형, 말뚝에 꽂아죽이는 형, 십자가에 못을 박아죽이는 형 등 그리고 체형의 경우는 얼굴에 글자새기기, 코자르기, 거세하기, 불에 달군 쇠로 지지기 등 야만적인 방법으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이 고대, 중세시기 국가들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이고 잔인한 형집행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수형자를 죽여도 그저 죽이지 않고 최대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집행하고 죽이기 전이나 죽인 후에도 보충적으로 수형자를 내돌리고 시체 또는 시체부분들을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두어두는것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된 현실은 착취계급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사실상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수 있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또한 련좌제도가 일반화되어있는데서도 표현되었다.

련좌제도는 죄를 진 사람뿐아니라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피줄이거나 같은 직종에 있다거나 근처에 산다는것 등을 구실로 련대적인 책임을 지우는 제도였다.

련좌제도는 력사상 처음으로 노예소유자사회에서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으며 주로는 봉건사회에서 널리 적용되었다.

프랑스법에서는 왕의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가해자가죽에게도 형벌을 적용하였다. 쓰르비아봉건법의 하나였던 《스제판 두산법전》에서도 국가반역에 대해서는 범죄자자신뿐아니라 한집에서 같은 살림을 하고있는 친척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객관적귀책》을 규정하였다. 반역자본인은 사형과 재산몰수형에 처하고 친척들에게는 벌금을 물게 하였다.

련좌제도는 범죄예방을 위한 적용에서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하나와 같이 착취계급이 피착취근로대중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는 도구였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재하는 잔인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형벌집행방법은 형벌의 위협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 즉 근로대중의 반항을 억눌러보려는 착취계급의 반동적요구의 반영으로서 착취사회에서 계급적모순이 격화되고 계급투쟁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혹화되었다.

이처럼 형벌집행을 통한 《위협설》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내세우고있는것으로 하여 통치계급에게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어떤 형벌이든지 마음대로 조작해내고 적용할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에 부합된다면 수행된 범죄에 대응한 보복의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이상으로, 범죄의 《예방》적목적이 달성될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형벌을 적용할수 있으며 또 적용하여야 한다는 구실을 준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견해였다.

이와 같이 고대와 중세시기 존재했던 범죄예방에 관한 견해는 그것을 주장한자들의 계급적치지와 시대적배경이 서로 다른것으로 하여 주장내용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으나 그것들은 모두 사상리론적, 계급적기초에 있어서 철두철미 착취계급들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대변하고 노예소유자국가와 봉건국가를 유지하고 인민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리론적수단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는 자본주의시기에 이르러 더욱 반동화되고 착취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여러가지로 각색되어 제창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인류학과》, 《범죄생물학과》, 《범죄사회학과》 등 각이한 학파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그릇된 리론으로 하여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있으며 착취자국가는 범죄를 막을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있다.

착취사회에서 범죄를 방지하려면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워야 한다. 범죄발생의 기본바탕인 착취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범죄의 방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착취사회에서 제창된 범죄예방에 대한 견해와 그 반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체의 형사법률사상과 리론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범죄예방에 관한 리론을 반범죄투쟁실천에 적극 구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고대, 중세, 범죄예방